

## 무엇이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는가

마크 탭/ 미국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덴은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교회에 나가도록 권유를 받을 때면, 그는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버리곤 했다. 심지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의 다락방에 있었던 세례 증서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덴은 알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도박 당구를 치지 않는다. 그러나 도박 당구는 덴에게는 생활의 일부였다. 그는 종종 자신이 당구대 위에 놓여 있는 상대방의 돈을 집어 갈 때, 창백하게 변해 버린 상대방의 얼굴과 들쭉이는 그의 어깨를 목격하곤 한다. 만약 그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그를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합리화시킨 다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는 현장을 덮쳤을 때 왜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44구경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다. 그 대신 그는 그 남자를 미친 듯이 두들겨 피투성이를 만들어 버렸다. 경찰이 제때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두 사람을 살인했을 지도 모른다. 경찰은 그를 구속하는 대신 정신병자 요양소로 보냈다. 그 경찰은 몇 달 전에 그의 아내를 간통죄로 체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덴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그때 이후, 덴의 인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도박 당구를 치지 않았다. 그와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몇 년을 근신 가운데 살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한 크리스천 여인을 만났다. 그들은 만난 지 삼 년 만에 결혼하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결혼생활에 따르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고, 그의 아내인 카렌도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카렌이 가끔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했지만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을 바꾼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딸아이의 출생이었다. 그의 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이를 허락할 때에야 가능했다. 그의 딸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다.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몇 번 방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딸아이가 **Jesus Loves Me**를 배우는 것 이상의 필요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공동체를 향한 회심

*Beyond Foundationalism, Shaping Theology in a Postmodern Context*의 저자인 스탠리 그렌츠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역에 대한 전문 잡지인 *New Wave*와의 인터뷰에서 그렌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독교 변증법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이다. IVF에 있는 나의 많은 동료들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회심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에게 회심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주일 성경공부나 가정에서 모이는 성경공부와 같은 하나의 모임에 모으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그룹들은 그것의 의도와는 달리 수용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이기가 쉽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북침례교회(Northside Baptist Church)에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존 마크 에이츠도 대부분의 소그룹이 외부인들이 들어와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힘든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주일 성경공부 모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알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에 불과한 모임 시간이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누가 오더라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수용성이 뛰어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연히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도자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여행의 동반자처럼

당신의 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일대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든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렌디피티의 소그룹 운동의 총책임자이자 15년 이상 소그룹 리더로 활동해온 마이크 셰퍼드는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은 이를 위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적극적인 개척자들의 자격으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 즉 예비 크리스천들의 사고와 삶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을 개척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신자들과도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수용성이 있는 소그룹을 개척하려는 지도자들은 기독교적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덴버에 있는 the Next Level Church의 소그룹 책임자인 신디아 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복음은◆가르쳐지기보다 간파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살아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보게 된다.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신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자 이상의 존재가 된다. 지도자들은 여행의 동반자로서 동료 여행자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가장 큰 증거는 다름 아닌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이다(요 13:35).

지도자들은 내향적으로 집중하려는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자신의 그룹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이크 셰퍼드는 공동체를 개척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인생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소그룹이 단순히 자기 몰입적인 성경공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관계들은 공통되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직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도록 만드는 공통 관심사에 낫설다. 신디아 털의 말을 빌리자면,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공동체의 개척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고민을 쉬지 않아야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모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 마이크와 달렌의 사례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은 주일 아침 한두 시간의 만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효과적인 공동체와 관계의 형성은 반드시 교회의 벽을 허물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덴버에 있는 The Next Level Church는 이를 위해 공동체의 형성과 지역사회 봉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교회의 소그룹들은 덴버 일대의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거리에서 낙엽청소를 하기도 하고, 부랑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교회의 행정 목사인 채드 레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일에 참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이해가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시는 분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교회가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진실한 소원이다.

달렌은 그의 남편인 마이크와 함께 몇 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느냐고 질문했을 때, 70대의 노인인 그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네요.◆"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를 눈치 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이름이 장년부 성경공부 시간의 기도 제목에 몇 번 오르내렸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따로 알고 있었다. 그 교회의 목사는 달렌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마이크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의 엉덩이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이크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때서야 비로소 마이크와 달렌이 교회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이크가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달렌은 이 사실을 스스로 받아드리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원치 않았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마이크는 그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녀도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달렌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교회의 가족들은 이 때부터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어떤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의 집에 잔디를 깎아 주었다. 또 다른 사람은 예배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몇 주치의 설교 테이프를 전해 주기도 했다. 카드와 편지들이 그들의 집에 날아들기 시작했다. 교회는 회의를 열어 그들 부부를 보살피기로 결정하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이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교회의 가족들은 이 노부부를 자신들의 한 부분으로 알고 이들을 보살펴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렌도 역시 자신이 이 큰 가족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 사랑 - 제자 됨의 표시

우리를 구속한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서로 소외된 채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과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고, 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으실 때, 그는 이 모임이 단순히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진실한 관계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드시는 동시에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지평을 공동체 밖으로 넓혀 나가도록 인도하신다.

교회는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해 둘러싸여 있다. 단순한 신학적인 정보와 지식은 그들

의 빈자리를 채워 주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시설들에 그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표시인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설문조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요소인가?**

조지바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15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 기초한 결과. 오차의 한계 +/-3%)

1. 성도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하다 78%
  - ◆비교적◆ 중요하다 16%
2. 교회의 신학적 교리적 고백이 건전한가?
  -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하다 76%
  - ◆비교적◆ 중요하다 16%
3.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훌륭하고 은혜스러운가?
  -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하다 76%
  - ◆비교적◆ 중요하다 18%
4.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중요하다 71%
  - ◆비교적◆ 중요하다 21%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와신학] 2002년 6월호(통권 156호) 258-262쪽에 실렸던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